



◀국립광주박물관은 17일 '아시아 도자 문화 교류의 거점'이 될 '도자문화관'을 공개했다.

## 한국 도자기 1000년 역사 열렸다... '도자문화관' 개관

국립광주박물관, '한국 도자'·'신안해저도자'·'디지털존' 구성  
신안 해저 유산 7000여 점 등 전시... '도자문화교류' 등 조형

국보 '청자 상감 모란 국화무늬 참외모양 병', 보물 '청자 귀룡모양 주자' 등 한국 도자기의 역사와 한중일 도자 교류의 흐름을 포괄하는 '아시아 도자 문화 거점 공간'이 문을 열었다. 특히 도자문화관은 지역 외에 우리나라 도자 관련 다채로운 정보를 망라하고 있어 향후 K컬처의 원형을 발굴하는 데 견인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최흥선)은 17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새롭게 문을 여는 '도자문화관'을 공개했다.

도자문화관은 박물관 오른쪽에 자리하며 연면적 7137 ㎡이며 지상 2층 규모다. 이번 개관은 지난 2018년부터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해온 아시아 도자 문화를 입체적으로 담아낼 '공간'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도자문화관에는 한국 도자 1000년의 역사가 깃든 도자기, 14세기 신안 해저 문화유산 7000여 점이 전시돼 있다.

최흥선 관장은 "도자문화관 개관으로 광주박물관이 내세웠던 브랜드 사업인 '아시아 도자 문화'가 첫 결실을 맺었다"며 "이곳을 매개로 우리나라 도자

문화가 광주를 넘어, 전국으로, 아시아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학술 세미나, 체험 프로그램 등을 다채롭게 마련해 시민들, 관람객들과 도자문화의 다채로움과 미감을 공유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교육, 연구, 휴게 기능까지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광주박물관에는 9만1000여 점의 도자가 관리 보관되고 있다. 신안해저에서 발굴된 도자 2만 5000여 점을 비롯해 중앙박물관이 광주박물관으로 이관한 2만5000여 점, 충효도요지 1만2000여 점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고(故) 이진희 삼성화재가 기증한 도자 1000여 점도 포함돼 있어 광주박물관은 아시아 도자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도자문화관은 크게 3개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 도자 전시실'은 한국 도자기

1000년을 엿볼 수 있다. 고려청자에서 조선 분청사기, 백자를 아우르는 지난한 역사가 투영돼 있어 우리나라 도자사를 한눈에 가늠할 수 있다.

1부 '천 년의 시간이 빛은 그릇'은 강진 사당리를 비롯해 지역 유적들이 관람객을 맞는다.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실물 그대로 옮긴 강진 용운리 10-1호 가마. 청자가 어떻게 제작되고 쓰였는지 당대 모습을 생생히 보여준다. 아울러 청자의 탄생부터 비색정자로의 도약, 상감을 비롯해 인화, 철화, 조화 등 장식 기법을 유물과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2부 '독자적 아름다움, 청자'는 고려시대 당대인들이 상상했던 이상사회가 어떻게 예술로 구현됐는지 압축돼 있다. 왕실, 민간에 이르는 차문화와 비색청자, 상감청자에 깃든 고려인들의 예술세계 조망이 가능하다.

3부 '모두의 그릇, 분청사기와 백자'는 고려 전통을 이으면서도 조선 초 새로운 사회에서 제작됐던 분청사기의 다양한 면모와 미감을 감상한다.



◀청자 상감 모란 국화무늬 참외모양 병 (국보)



실물 그대로 구현한 강진 용운리 10-1호 가마.

또한 일반인들이 사용했던 백자의 생산, 유통 외에도 최고급 백자에 투영된 아름다움도 살펴볼 수 있다.

두 번째 공간 '신안해저 도자 전시실'은 14세기 동아시아 교류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신안 해저 유물은 도자기 2만5000여 점, 금속, 생활용품 등 총 2만7000여 점에 이른다. 이곳에선 대표 도자기를 비롯해 14세기 중국 도자기 생산, 유통 등 다양한 정보를 만난다.

디지털로 도자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공간도 있

다. 세 번째 공간 '디지털 아트존'에서는 도자기 세계를 60m 초대형 파노라마로 접한다. 전시실에서는 '흙의 기억, 빛으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한 몰입형 미디어 작품이 관람객들을 맞는다. 지역의 대표 경관을 모티브로 흙, 물, 불이 빚어낸 도자의 탄생은 세대를 아울러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다.

한편 2층에는 이진희 화장이 기증한 석조문화유산 41점이 비치돼 있어 석조가 발현하는 특유의 미적 감각을 느낄 수 있다. 뮤지엄 숍은 박물관이 제작한 다양한 굿즈 외에도 문화상품이 진열돼 있어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청자 귀룡모양 주자(보물)

## '감각과 시스템이 교차하는 지점' 인터랙티브 작품 선보인다

GIST 프로젝트 '메타모프' 전  
19일까지 중앙도서관 등서

기술과 예술, 경험을 매개로 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콘텐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인터랙티브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가 열린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제5회 디지털 전시 프로젝트 '메타모프'를 오는 19일까지 중앙도서관과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이원 전시로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송은성 교수(AI융합학과)의 '디지털 전시 콘텐츠 프로젝트' 수업을 들은 대학원생들이 결과물을 선보이는 자리다.

특히 병원 전시는 2개의 참여형 미디어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병원 구성원들에게 문화를 매개로 위로와 위안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감각과 시스템이 교차하는 지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감각, 상호작용, 시스템 사고의 결합을 상징한다. 프로젝트 '메타모프'는 변형, 변환을 뜻하는 메타모프시스에서 연유하며 기술적 시스템과 경험이 상호 작용을 통해 변화를 견인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권은주, 김성현, 박유천, 이운성 작 '바람, 개비'

병원 전시 작품인 '바람, 개비'는 이색적이면서도 흥미롭다. 관객이 색종이에 적은 소원이 디지털 바람개비로 변환돼 스크린 속에서 회전을 한다. 관객이 입으로 바람을 불면 그에 따라 바람개비가 변환한다.

박유천 학생은 "상호 작용을 통해 마음이 공유될



수 있다는 데 이 작품의 묘미가 있다"며 "추운 연말이지만 병원을 찾는 이들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송 교수는 "이번 프로젝트 관련 전시는 학생들이 기술과 감각을 모티브로 탐구하고 구현한 결과"라며 "기술과 인간의 경험이 만났을 때 발견되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참여 교육생들의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 광주문화재단 성과공유회 '우리들의 크리스마스'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예술을 통해 일상을 돌아보고, 이웃과 지역을 다시 바라보는 교육 활동 이어오고 있다.

창작의 경험은 삶으로 확장되고, 현장에서 쌓인 만남은 지역의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참여자들의 성장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에서 '2025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성과공유회-우리들의 크리스마스'를 연다.

올 한 해 추진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연말 성과공유회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기존 참여단체 중심의 형식을 넘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교육생까지 함께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지원사업별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내년도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우수 사례 발

표를 통해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특히 행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을 위한 '예술시민 졸업식'이 열린다. 교육생들에게 졸업증서를 전달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변화한 개인의 경험과 성장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참여자 간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파티 '우리들의 크리스마스'도 진행돼 연말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202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성과를 담은 사진과 영상 전시도 함께 열린다.

배동환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단순한 사업 보고를 넘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형성된 관계와 성장의 과정을 함께 돌아보는 자리"라며 "시민들이 예술을 통해 배우고 변화하는 시간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하기 위해 빨강 또는 초록색의 드레스코드 착용을 권장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한겨울 적시는 명품 발라드...DK 광주 콘서트

내년 1월10일 조선대 해오름관

"잘가요 내 소꿸했던 고마운 사람. 참 힘들었지만 이제는 놓아줄게요."

가슴을 파고드는 노랫말과 호소력 짙은 음색으로 사랑받아온 '명품 발라드' 디섀버 DK(사진)가 광주 관객들을 찾는다.

DK의 단독 콘서트 'TIMELESS'가 내년 1월 10일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열린다. 지난 11월부터 이어지는 전국 투어 콘서트의 일환으로, 깊고 묵직한 발라드의 감성이 새해의 문턱을 따뜻하게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에서 DK는 대표 히트곡부터 새롭게 편곡한 리메이크 무대까지 보다 다채해진 세트리스트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미 아름다운 그대', '부탁', '안녕을 바라는 마음' 등 기존 대표곡은 물론 최근 다시 화제를 모은 '가만히 눈을 감고'도 라이브로 감상할 수 있다.

DK는 "광주 팬들은 언제나 따뜻한 에너지로 공연장을 채워주는 만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만들고 싶다"며 "한 곡 한 곡 온 마음을 다해 부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콘서트를 주관한 티나엔터테인먼트 김현수 대표는 "DK의 장점은 음원으로 들은 감성을 압도



하는 라이브 퍼포먼스"라며 "이번 광주 공연 역시 깊은 울림을 전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A석 11만원·S석 13만2000원·R석 14만3000원, NOL티켓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